

공동펌프우물과 이웃공동체

박영숙 본 연대 으뜸지기

캄보디아를 아는 사람이면 누구나 유구한 역사와 한 시대의 번성을 입증하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의 하나인 '앙코르와트(Angkor Wat)'와 거대한 벵골보리수뿌리가 웅장한 사원 건축물을 뒤덮으며 무참히도 파괴하고 있는 현상을 목도하면서 자연의 생명력 앞에서 인간의 무력함을 실감하게 하는 '따 뿌롬(Ta Prhom)'을 기억할 것이다.

1975~1979년에 폴 포트가 이끈 크메르루주 공산당에 의해 200만 명이 죽임을 당한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비극과 공포의 현장이었던 '킬링필드'와 혁명정권의 악명 높은 신문, 고문, 유치실로 쓰였던 만행의 전시관인 '뚜올 슬랭(Tuol Slang)'도 관광객들의 머리와 가슴 속에서 쉽게 지워버릴 수 없는 섬뜩함과 가슴저림을 안겨준다.

캄보디아의 인구는 아직 1,500만 명도 채 못 되고 있는데 유아사망률은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높으며 AIDS로 연간 15,000명이 죽는가 하면 1997년 이후 지뢰로 인해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하는 사람의 수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다. 매달 265명이 지뢰로 인해 지체를 잃고 있다고 하니 인구의 3%가 지체장애우인 것은 당연하다. 1969년 캄보디아가 베트남전쟁에 말려들기도 했지만 3년 9개월간의 공산당의 학살로 인해 이 나라에는 수많은 고아들이 시설에서 자라고 있었다.

세계인구의 5분의 1인 12억 인구가 하루 1달러 이하로 생활하고 있고 세계인구의 4분의 1 이상이 음료수, 공중위생, 보건과는 무관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유엔의 걱정거리이다. 1인당국민총생산이 2004년 기준으로 314달러에 불과한 캄보디아는 아시아권에서도 가장 가난한 나라여서 해마다 풍토병인 장티푸스, 말라리아, 이질 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는가 하면 전인구의 5%만이 안전한 식수를 공급받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빈곤이야말로 두려워해야 할 폭력이다'라고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가 말했던 대로 이 빈곤의 폭력이 주민을 위협하고 있는 곳이 캄보디아이다.

온갖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캄보디아 오지에 사는 주민들에게 우선 깨끗한 물을 제공하는 일에 발 벗고 나선 기업의 사회공헌팀이 국내에서도 좋은 물공급에 주력하고 있는 <웅진코웨이>이다. 우기에는 빗물을 건기에는 웅덩이 물을 향아이를 이용해서 걸러서 먹고 있는 사람들에게 공동펌프우물을 파주는 일이다.

지난 9월16일~23일까지 1주일간 웅진의 이진부회장님이 이끄는 사회봉사활동단이 캄보디아를 찾은 것은 23번째의 우물을 기증하는 일과 고아원방문 그리고 나무심기 등의 활동을 펴기 위해서였다. 이번 방문단에는 웅진의 사회봉사단원들, 홍보대사인 윤다훈씨를 비롯한 홍보요원들, 수질검사를 하기 위한 지질학회 회원들, 언론사의 기자들 그리고 여성환경연대의 이미영 사무국장과 필자가 포함되어 있었다.

여성환경연대가 여기에 가담하게 된 연유는 이진부회장의 특별한 배려 덕분이었다고 여겨진다. 캄보디아 주민들에게는 깨끗한 물도 필요하지만 우리나라 여성환경인들의 보살핌도 있어야 한다는 판단으로 이들이 필요로 하는 과제를 찾게 하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었던 것으로 안다. 우리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여성환경연대가 기획 중에 있는, 가난한 동남아의 여성들이 추진하고 있는 빈곤과의 전쟁의 일환인 공정무역관련 과제를 찾아 나섰다. 방문시기가 마침 그들이 중시하는 추석명절과 맞물려서 계획한 작업장 방문은 뜻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방문이 가능했던 시설은 뉴질랜드의 외교통상부의 지원으로 기초가 다져진 장애우

들의 수공예장이었다. 앞으로 계속 공정무역뿐만이 아닌 교육활동 등의 여타 활동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공동펌프우물이 세워지는 곳마다 세워지는 표지판에 웅진과 나란히 여성환경연대의 이름이 새겨지는데 대한 책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2004년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된 세계지속가능정상회의(WSSD)에서 유엔사무총장이 선언한 5대과제 중의 하나인, 사람들에게 깨끗한 물을 마시게 하는 일에 웅진코웨이가 함께하고 있다. 수인성질환에 시달리고 있는 캄보디아 주민들에게 우물을 파주고 사원들의 봉사정신을 이웃나라에 미치게 하기 위한 이번 웅진의 캄보디아 나들이에 함께 하면서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경험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 큰 행운이었다.

험한 길을 달려서 찾아간, 우물이 만들어진 곳곳에서는 주민들과 어린이들이 환호하며 신나하는 풍경에서 나눔의 보람을 느낄 수 있었으며, 동행한 지질학자들이 퍼 올린 물의 수질을 점검하는 모습에서 웅진의 책임의식을 엿볼 수 있었고, 일행이 방문한 고아원에서는 안아달라고 달려드는 어린이를 안으면서 50년대 학창시절 전쟁고아를 돌보았던 6.25의 아픔을 되새기기도 하며 돌봄의 따뜻함을 체험했다.

수도 셀 수 없을 두개골이 보존되고 있는 '킬링필드'와 고문기구와 피살자의 영정이 전시되어 있는 '뚜올 슬랭'을 돌아보며 캄보디아의 아픈 역사에서 이웃의 침략을 받은 바 있으며 동족상잔의 쓴 경험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었기에 연민의 정을 금할 수 없었다.

더욱 마음 아팠던 것은 공산혁명치하에서 죽어간 200만 명이 먼저 끌려간 사람들이 3명씩 지명한 사람들이 다시 끌려오면서 쌓이게 된 숫자이기에 지금도 이 나라 사람들은 서로를 믿지 못한다는 것이다. 부부간의 신뢰마저 깨져버렸을 정도라는 데서 그 심각성을 짐작할 수 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물이란 물을 공급해주는 곳일 뿐만 아니라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 사랑방구실을 한다는 데서 의미가 크다. 우물가에서 주민들은 애환을 나누며 서로를 돌봄으로써 우물물을 나누는 사람들이 한 가족이 되는 것이다.

웅진이 설치하는 우물은 <공동펌프우물>이다. 개인의 것이 아니라 10가족 이상의 공동우물로 하고 있다. 웅진이 벌이는 이러한 사업은 이 나라 사람들에게 깨끗한 물을 마시게 할 뿐만 아니라 상실했던 사람들 사이의 신뢰감을 회복하게 한다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앞으로 그 수를 늘려갈 웅진의 공동펌프우물이 캄보디아의 사라졌던 <이웃 공동체>를 복원하는 일에 크게 공헌할 것으로 확신한다. 한국 사람으로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나라에 온정을 베풀고 있는 웅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여기에 여성환경연대가 함께하고 있는 것을 영광으로 여긴다.